



천국의 아이들

마태복음 19:13-15

아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니라. 부모가 주인이 아니며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모두가 청지기일 뿐입니다. 충성되어 그 생명을 맡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만해도 항상 들었던 얘기는 "애들은 가라!" 돈없는 어른도 가라! 그러나 요즘에는 애들은 오라, 가정 먼저 오라!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라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들은 이곳에 오지 못한다고 금했고 허락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이 때 주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 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 자의 것이니라!" 제가 놀랍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이거 나, 아니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 아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라는 뜻입 니다.

수 천년간 어린이는 '축소된 어른'입니다. 이 생 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축소 된 어른'이란 말은 아이들이 아직 덜 자란 어른인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시기는 전혀 고유한 시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덜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대접 받습니다. 그 전에는 아 직은 별 쓸모없는 시기입니다. 숫자에도 들지 못했 고 옷도 어른 옷을 줄여서 입혔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들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 옷을 줄 여서 입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 로스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고 아 이들 나름대로의 세계를 인정해줬습니다. 교육의 역사를 살펴 보시면 아이들을 아이들로 인정한 것 은 많이 잡아아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 표적으로 스위스 교육가 루소를 들 수 있습니다. 루소가 교육을 하면서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어 린이 중심으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는 아이 고 어른은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덜 자란 어른이 아니라, 어른과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른과는 다른 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린이는 어른 마음대로 다룰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 나름대로의 세계를 인정해줘야 하고,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로 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안수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도, 사소한 사건도 아니 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대하시는 모습 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이를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철저히 하 나님의 주인이시고, 천히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나 라, 하나님만이 경배 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사건 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에 관한 사건이 아 닌니다. 사건의 중심은 아이들이 아니라 천국입니 다. 그러기에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 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 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 습니다.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아이와 같은 자들 의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Childish가 아니 라 Childlike입니다. 아이처럼 유치하고 미숙한 것 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뭔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면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는 어른들의 말을 듣는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가자 고 했을 때 갑니다. 다른 하나는 어른들의 소망 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 도하기를 바라고 그 바람을 아이들이 이루었습니 다. 세 번째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없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의외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들 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의 소망을 이루었 고 어른께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냐? 하 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 람, 예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래드(Rad)라는 신약학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은 의외로 그 대답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회개 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한가? 단순하지만 심오 하고 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얼 마나 단순한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냐?"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대답은 의외 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한 마디에 부자 청 년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 라에 들어가는 모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 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의 소망을 품는 자입니다. 내 소망을 포기하지 않 는 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수백년 그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데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당장 로마 제 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

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 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오병 이어 의 기적을 늘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소망입니 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순 종했습니다. 부자청년의 말입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포기하지 못합니 다."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 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모 든 계명에 다 순종해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 무리 신앙이 깊어져도 이것만은 요구하지 마십시 오.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계명을 지키겠지만, 그 러나 재정적으로 손해나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 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기 도 받고 안수받기 위해 예수께로 나왔을 때 주님께 서 이들을 받아주셨고, 환영하셨고 그리고 안수하 셧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들에게는 그 어떤 사건보 다 큰 사건이요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소망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영접받는 사건입 니다. 나를 꾸짖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면서, 품어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존귀케 하셨습 니다. 옛날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쁨을 부 어 안수한 것처럼 이들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 사장처럼, 존귀케 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 는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란 자신의 소망을 부인하 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 율호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리고 계명을 바라보며 예수께만 헌신하는 사람들 입니다.

청지기인 부모

사사기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삼손이 태어난 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합니 다. "우리가 그 낱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 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이 생명이 하 나님의 생명을 맡았습니다. 이 생명 속에 하나님 의 기록하신 뜻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생명을 맡은 자라는 것 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마노아는 기도합니다. "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나 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부모된 우 리들은, 모두가 청지기일 뿐입니다. 충성되어 그 생명을 맡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맡은 자들 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느 한 순간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 성들은 바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게 요구하는 것은 맡은 자로서 충성되어 키우는 것 이요, 훗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아주시는 것입니 다.



무지개 운동회

- 1) 우리팀 단합이 최고 소망팀과 사랑팀의 열띤 응원배틀
- 2) 일심동체가 되어 보트를 타고 달리는 소망팀
- 3) 힘차게 희망을 날려보내는 사랑팀
- 4)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다양한 부녀



VS



주님의교회가 더욱 '주님의 교회' 일 수 있게 하는 무지개 축제

(제6회 무지개축제 총괄기획팀장) 김성규 목사

영국의 낭만적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쓴 무지개란 시가 떠오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 내 가슴은 설레요 / 내가 어릴 때도 그랬고 / 다 차란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 바라노니 내 하루하루가 / 자연의 경건함으로 늘 충만하기를...]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아이,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어릴 적 무지개 꿈을 갖고 사는 어른들에게 그 무지개를

되찾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이 금년도 무지개 축제의 기획 방향입니다. 무지개 축제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교회와 학교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가능한 일입니다. 큰 운동장이 있고, 멋진 정원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축제이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축복

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받은 축복,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어 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내건 슬로건이 「우리끼리 축제를 넘어 지역축제로」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충실 하였는가 반성해 봅니다. 미처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 리의 미숙함이 농어촌교회, 도시개척교회와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 등, 함께 참여한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계기가

어울림마당



- 1)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성스런 손길
- 2) 먹거리에서 탈출하라! 슬라이드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
- 3) 진정한 표정을 지으며 카네이션만을 기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 4) 맛있는 월남쌈을 만들고 있는 다문화 가정
- 5) 즐거운 점심시간 구역간의 우애를 나누며,
- 6) 예수님 안에서 순환 양이 되고있어요!
- 7)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성 경골든별



무지개콘서트



되리라도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을 전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려나 하면서 ... 축제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 몸, 내 시간 켜가며 헌신하신 그분들 의 사랑로 준비 과정의 부족함과 미비점 을 재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즐 겨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축제를 즐겨 주신 정겨운 모습의 교인들과 어린이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주님의교회화 더욱 더

‘주님의 교회’ 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쉽고 부족한 점들은 개선하 고 보완해가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9:13)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무지개의 꿈 ‘을 되찾아 이 땅 에서 ‘하나님의 꿈 ‘을 조금씩 이루어 가 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6회 무지개 축제 개요

- 주제 : 창립 2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기획방향 : 어린이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희망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 슬로건 : '우리끼리 축제를 넘어 지역 축제로'
- 참가대상 : 주님의 교회 교인 및 동반자, 지역주민 및 어린이 외부초청손님 : 농어촌교회, 도시개척교회, 다문화가정 등...
- 행사 구성 및 공식명칭 (총 8개의 행사)
- 1) 무지개운동회: 8개 경기종목
- 2) 먹거리마당: 17개 품목 (11개 부스)
- 3) 놀이마당: 바이킹등 8개 놀이기구
- 4) 축제마당: 페이스페인팅등 17개 종목
- 5) 무지개사신전
- 6) 골든벨
- 7) 볼볼찾기
- 8) 무지개 콘서트
- 봉사 스태프 : 총 215 명 (특히, 청년부 100 여명 봉사참여)
- 준비 기간 : 약 2개월